

사시환아의 정서 및 행동장애에 관한 임상적 고찰

유혜린 · 이종복 · 한승한 · 김상균* · 김희선** · 신의진*** · 김선희****

= 요약 =

저자들은 사시로 진단받고, 수술 받기 위해 입원한 환아들을 대상으로 정서 및 행동장애 상태를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사시 환아 57명을 대상으로 남아 27명, 여아 30명이었으며, 이들은 간헐성 외사시 32명, 항상 사시 25명으로 연령은 5~15세로 평균 연령은 7.96 ± 2.5 세였고 아동행동 조사표(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부모들로부터 작성케 하여 분석하였다.

CBCL 총 점수가 54점 이상인 아동은 총 57명 중 3명(5.3%)으로, 정상 아동과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었다. 문제행동 증후군에서, 간헐성 사시 환아군은 항상성 사시 환아군에 비하여 가정내 행동, 내향성, 위축의 순으로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정내 행동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간헐성 사시 남아는 항상성 사시 남아에 비하여 사고 장애, 내향성, 위축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으며 사고 장애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사시 환아에서 주로 내재화적 행동장애를 겪게 되고, 성장단계, 남녀에 따라 겪는 사회적 갈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시 환아를 치료할 경우,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정서적 지지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한안지 40:2611~2616, 1999).

<접수일 : 1999년 5월 19일, 심사통과일 : 1999년 7월 8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 개발 연구소

Address reprint requests to Jong Bok Lee,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Medical College,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ku, Seoul, 135-270, Korea

Tel : 82-2-361-8450, Fax : 82-2-312-0541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Medical Colleg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충문의과대학 차병원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Medical College, Joongmoon University, Sungnam, Kore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ics, Medical Colleg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Post Graduate Cours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본 논문은 1999년도 춘계학회에서 구연 발표되었음.

= Abstract =

Clinical Study on Emotion and Behavioral Disturbance in Children with Strabismus

Helen Lew, M.D., Jong Bok Lee, M.D., Sueng Han Han, M.D.,
Sang Kuin Kim, M.D.*, Hee Seon Kim, M.D.**,
Yee Jin Sihm, M.D.***, Seon Hee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strabismus children.

Parents of 57 children who were 27 males and 30 females, composed of 32 intermittent strabismus and 25 strabismus, 5~15 years-old with average 7.96 ± 2.5 years-old were asked to answer a questionnaire child behavioral check list (CBCL) concerning for their child'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result showed that 5.3% of studied children reveale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which is not higher than in healthy normal children. In case of children with intermittent strabismus, home activities, introspection, and social withdrawal were major problems, especially the problem scores of home activiti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to the children with strabismus. In the aspect of sexual difference, male children with intermittent strabismus showed the higher problem scores of thought disability, introspection, and social withdrawal, especially thought disability compared to the male children with strabismus.

Many children with strabismus experienced internalizing emotional problems especially in children with intermittent strabismus. These problems are sligh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 and sex. When we treat the children with strabismus, not only conventional medical care but also gradual emotional support may be in need (J Korean Ophthalmol Soc 40:2611~2616, 1999).

Key Words :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trabismus children

시자극이 관여하는 두뇌기능의 발달과 이와 병행된 심리, 정서적 발달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소아에서 발생한 사시는 크게 비수술적 보존 치료법과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다. 사시 환아에서 두눈의 정위가 깨지고 편위안이 나타나면 환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및 주변 친구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과 사회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반 아동에 비해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사시가 나

타나는 양상에 따라서 정상인 시기와 편위되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간헐성 사시와 편위 안이 항상 고정되어 나타나는 항상 사시의 경우에서 한창 심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소아, 학동 시기에는 정신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국내에서 최근까지 사시 환아들을 위한 정신적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사시 환아들의 정신적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저자들은 사시로 진단받고 수술 예정인 환아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평가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아동들에 비해 얼마만큼 정신적인 어려움이 심한지, 또한 정신적 문제 중 어떤 종류가 더욱 현저한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1998년 5월 1일부터 1998년 12월 1일까지 본원 안과에 내원하여 사시로 진단받고 수술 예정인 환자 중 본 설문지에 응답 가능하였던 환아 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아가 27명, 여아가 30명이었으며, 간헐성 외사시 32명, 항상 사시 25명으로 이중 외사시 14명, 내사시 8명, 상사시 3명이었다. 연령은 5~15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7.96 ± 2.5 세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였다.

2. 방법

사시 환아들의 부모들에게, 아동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모 설문형식의 한국판 아동행동 조사표(Child Behavior Check list : CBCL)를 작성하게 하였다.

아동행동 조사표는 총 11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공격성, 잔인성, 비행, 과잉활동, 반항 등의 행동문제를 시사하는 외현화 행동증후군(externalizing syndrome)(Table 1)과 정서 불안정, 사회적 위축, 강박, 우울, 미성숙, 의존 등의 정서적 문제를 시사하는 내재화 행동장애 증후군(internalizing syndrome)(Table 2)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또한, 아동행동 조사표는 성별, 연령층(4~5세, 6~11세, 12~16세군)에 따라 각각 다른 문제행동 증후군으로 구성되므로, 본 연구의 대상군은 소아(4~5세), 초등학생(6~11세), 중학생(12~16세)을 남, 녀의 군으로 나누어 점수화하였고, 총점과 각 증후군별 점수가 정상 아동군에 비해 몇 %에 해당되는지를 측정하였으며, CBCL 총 문제행동 점수가 정상집단의 상위 10%에 해당되는 점수를 정신과적 임상 집단 변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54점 이상이 정신과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¹⁾.

Table 1. Childhood Behavior Check List(Externalizing syndrome)

증후군	문 항
과잉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에 비해 어리게 활동 • 남과 어울리지 못함 • 주의 집중문제 • 언어장애, 안절부절 • 놀림을 받음 • 나이 어린 애들과 놀음 • 너무 어른에게 의지 • 낮은 자아개념
공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다른 아이 물건 파괴 •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 • 잘 다치고 사고 • 나쁜 짓하고 가책 없음
잔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을 잔인하게 괴롭힘 • 동물을 잔인하게 다름 • 충동적 • 고함, 욕, 소란스럽다

Table 2. Childhood Behavior Check List(Internalizing syndrome)

증후군	문 항
사고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박적 사고 • 없는 소리듣기(환청) • 강박적 행동 •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사고내용 및 이에 관련된 행동
사회적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있는 것 좋아함 • 다른 아이들과 못 어울림 • 청결, 정돈에 신경 • 말을 안함
성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치게 자신의 성기를 가지며 논다 •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논다
내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 •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결 과

1. 사시 환아와 정상아에서 문제행동의 빈도

CBCL 총 점수 54점 이상이 사시 환아에서는 57명 중 3명(5.34%), 정상 아동에서는 10.0% 이하로 나타나 정상인과 유사한 빈도를 나타내었다.

2. 연령별, 성별 문제행동 점수 비교

사시 환아에서 CBCL 총 문제행동 점수는 간헐성 사시 환아군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고(49.7±9.8 vs 49.7±6.7), 항상 사시 환아군에서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51.8±7.6 vs 51.7±9.7). 그러나 항상성 사시군으로 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3. 문제행동의 내용 및 빈도

사시 환아에서 문제행동 증후군은, 간헐성 사시

환아군은 항상 사시 환아군에 비하여 가정내 행동, 내향성, 위축의 순으로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정내 행동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p=0.039) (Table 3). 사시 환아에서 문제행동 증후군은,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성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p=0.039) (Table 4). 간헐성 사시 환아에서 문제행동 증후군은 남아에서 여아에 비하여 사고장애, 성문제, 위축의 순으로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고장애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p=0.030). 항상성 사시 환아에서 문제행동 증후군은 남아에서 여아에 비하여 성문제, 위축, 사고장애의 순으로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문제(p=0.043)와 위축(p=0.040)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5). 성별 차이를 고려한 분석에서, 간헐성 사시 남아는 항상 사시 남아에 비하여 사고장애, 내향성, 위축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으며 사고

Table 3. Problem scores by types of strabismus

문제행동 증후군척도	간헐성 사시	항상 사시	p-value
가정내 행동	54.0	36.4	0.039
위축	55.0	40.7	0.095
내향성	55.0	35.4	0.080

Table 4. Problem Scores by sex

문제행동 증후군척도	남아	여아	p-value
성문제	52.0	40.4	0.039

Table 5. Problem scores by sex in both strabismus groups

문제행동 증후군척도	간헐성 사시			항상 사시		
	남아	여아	p-value	남아	여아	p-value
사고장애	28.0	12.3	0.030	23.0	20.1	0.674
성문제	27.0	10.9	0.459	23.0	18.7	0.043
위축	30.0	25.2	0.736	23.0	22.5	0.040

Table 6. Problem scores by types of strabismus in both sex groups

문제행동 증후군척도	남 아			여 아		
	간헐성 사시	항상 사시	p-value	간헐성 사시	항상 사시	p-value
사고장애	23.0	11.9	0.022	28.0	22.5	0.606
위축	25.0	23.7	0.071	28.0	21.6	0.692
내향성	25.0	24.6	0.061	28.0	13.1	0.793
가정행동	25.0	24.8	0.335	27.0	9.7	0.085

장애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p=0.022$). 간헐성 사시 여아는 항상 사시 여아에 비하여 가정행동장애, 사고장애, 위축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Table 6).

고 찰

본 연구는 사시로 진단된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 및 행동문제가 어느 정도 있으며 그 종류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실제로 성인기는 물론 아동, 청소년기의 심리적 적응문제가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과 함께 특히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문제는 이들의 인지적, 정서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인기의 정신건강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평가도구 가운데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는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부모가 평가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정서, 행동문제의 빈도를 조사하는 기초 역학 조사 도구의 차원을 넘어 아동, 청소년의 심리장애의 진단을 위해서도 유용한 임상적 도구이며, 현재 미국은 물론 태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²⁾. 특히 국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으며, 국내 연구를 통해 문제아동을 선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높은 도구로 입증되었다. 부모설문의 방법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부모가 평가한다는 점, 부모의 견해의 편파성으로 인하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아동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있는 부모가 평가한다는 점, 비교적 사용이 간편하므로 다수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유리한 점들로 인해 철저한 평가에 앞서 예비판별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³⁾.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첫째, 한국인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BCL의 총 점수가 54점 이상인 경우가 10% 이내를 기준으로 삼을 때 본 연구의 사시 환아에서는 5.3%로 정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정상 아동에 비해 사시 환아에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발생률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사시 환아의 가정 환경적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 대상의 경제적 수준이 대부분 중류층이며 결혼 가정이 없다는 점등을 미루어 사시 환아에서 병 자체로 인한 정신적 문제의 가능성이 더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사시 환아에서 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증후군들은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 성문제(sexual problem), 사고장애(thought problem), 내향성(introspection), 가정내 행동장애(home activities problem) 등이었다. 초등학생, 청소년기의 남 여 아동 네 군에서 가장 빈번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증후군은 사고장애라 할 수 있다. 내향성, 성문제, 사회적 위축, 사고장애는 정서장애의 증세이며, 또한 외면적 행동장애 증후군보다 내면적 행동장애 증후군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사시 환아들은 정서장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간헐성 사시 환아에서 항상 사시 환아에 비하여 사고장애가 더 높게 나타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사고장애가 있으면 성장발달 해당 단계에서 습득되어야 하는 많은 내용들의 학습이 방해되고, 학교내 수업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속되면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CBCL은 screening 도구로서 그 총 점수가 54점 이상이거나 단일 증후군의 점수가 정상 아동군의 98% 이상일 경우에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아동 중 CBCL 점수가 54점 이상인 아동들이 어떤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혹은 사회사업 분과등의 여러 과에서 정신적 문제의 종류와 심각도를 알아보는, 다분과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³⁾, 특히 사시 환아를 위한 강좌교육에서도 사시 자체에 대한 교육

이외에 가족, 친구, 선생님들의 정서적인 문제의 이해와 이에 대한 협조가 같이 설명, 교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사시 환아에서 사회적 위축, 내향성, 사고장애 등 주로 내재화 행동장애 (internalizing syndrome)를 겪게 되고, 성장단계, 남녀에 따라 겪는 사회적 갈등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시 환아를 치료할 경우,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정서적 지지 및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더 많은 환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같은 사시 환아를 대상으로 사시치료 전과 후의 정서, 행동발달문제를 비교 연구하여 본다면 사시치료의 심리, 정서적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

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이해련, 오경자 : 한국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 자료의 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별책 9권, 1990.
- 2) Achenbach TM :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1991.
- 3) 이해련, 오경자, 홍강의, 하은혜 : 문항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 유용도 검증. 청소년 정신의학 2:138-149, 1991.